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익산 솔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개별 등록문화재 10개소가 등록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근대문화유산 시너지 효과 '톡톡'

익산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전북도와 익산시는 올해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익산 솔리 근대역사문화공간(面) 및 개별 등록문화재(點) 10개소가 지난 10월 22일 등록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익산시는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 관련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국비 20~50억원이 지원된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은 기존 '점'단위 개별문화재 중심의 단선적·평면적 보존관리에서 입체적·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를 2018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3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공모신청서를 접수 11건의 사업에 대해 서면평가, 현지평가 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2일 선정위원회에서 익산, 영덕 등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전북도와 익산시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전문가의

검토, 사업계획서 사전협의 등으로 꼼꼼히 준비해 왔고, 서면평가에 통과한 후 현장평가에 대비하여 도와 시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근대문화자산을 추가로 5개소를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내실 있게 보완하는 등 도와 시군의 협업을 통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심사 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익산 솔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인북로 일원/2만1,168.2㎡)'은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군산과 전주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작은 시장과 마을이 형성되어 1914년 동이리역(東里驛)이 생기면서 솔리시장(현재의 남부시장 주변 일대) 일원이 변화했고, 1919년 4월 4일에는 솔리시장에서 4.4만세운동이 있었다.

광복 이후 형성된 주단거리, 바느질거리 등 근대도시경관과 당시의 건축물이 집중 분포되어 있어 과거 이리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어 공모사업에 최종 확정되었다.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익산 구 대교농장 사택, 익산 구 신신백화점,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1~5, 익산 보화당한의원 구 건조장고, 익산 구 이리금융조합, 익산 인북로 근대상가주

택 등 10개 핵심 시설과 건축물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또한, 공모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1914년대 건립한 익산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사무실과 4.4만세 기념공원이 있는데 이와 연계할 경우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상승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솔리진 도지사는 "앞으로 익산과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문화유산 활용으로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고용창출에도 북돋아 한 몫을 함께 따라 도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이 소중한 문화재를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 솔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이외에도 익산시에는 보존·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춘포농장창고 등)이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근대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가치 있는 근대건축물을 추가로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익산=정인천 기자

장수 시예술원 동호회 시낭송가 2명 배출 '쾌거'

장수 시예술원 동호회에서 시낭송가를 배출했다.

최근서울 도곡동 재능빌딩 5층 극장에서 펼쳐진 '제29회 재능시낭송대회' 성인부 본선에서, 전북재능시낭송협회 장수지부장 최영희와 김진희원이 시낭송대회에 참가 각각 동상을 수상해 재능시낭송협회 시낭송가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재능시낭송대회는 각 권역별 지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야만 전국 재능시낭송대회에 출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시낭송 활동의 역사가 짧은 장수시예술원은 2017년 2월 출범한 동호회로 시낭송가가 최초로 탄생

하였고, 또한 작은 군단위의 지역에서 두 명 배출한 사실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지가 동호회원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수 시예술원이자, 전북재능시낭송협회 장수지부인 최영희 지부장은 "시낭송가 배출을 위해 그 동안 중앙(재능시낭송협회) 최고의 강사진을 초청 강의를 듣기도하고 회원들이 틈틈이 관외로 시낭송 공부를 하러 가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 장수에서 더 많은 시낭송가를 배출하고자 더 많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난 2일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이 주관하는 '2019 술익은 날' 행사에 박성일 완주군수, 윤수봉 완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술, 맛있게 익었네"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술익은 날' 행사 성료

완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의 술이 맛있게 익었다.

4일 완주군은 지난 2일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이 주관하는 '2019 술익은 날' 행사에 박성일 완주군수, 윤수봉 완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무대행사인 대청대출 한진해, 막출 경연대회, 국악한마당과 소믈리에가 권하는 대표 우리술 프로그램 일환으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한국외인, 수제맥주, 자연발효식초 홍보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이번 행사의 주 프로그램인 가양주와 안주 경연대회 본선행사가 치러졌다.

예선을 치른 9팀의 본선 진출자들이 관광객 평가(각 10명)를 받았고, 안주 경연대회에서 대전의 이미리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제는 "집에서 즐겨먹던 안주를 좀 더 여유있게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는데 1등의 영예까지 안아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고 전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020년은 술테마박물관 2단계 사업인 관광휴먼지 조성 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해이자 개관 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며 "술박물관이 완주군 남부권역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지로 육성되어 좀 더 많은 관광객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0월 개관 5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술 관련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회이상 기획 특별전을 열어 전국의 전통주 매니아를 부르는 술 문화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술박물관 14차 기획특별전인 '차예와 나는 친구야 친구, 한잔하세'는 2019. 11월~2020년 2월까지 2층 기획전시관에서 운영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내일 '수묵정신 특별전' 작가와의 대화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에서는 '수묵정신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는 12월 1일 까지 이어진다.

전북도립미술관의 '수묵정신 특별전'은 우리 전통의 정신과 뜻을 표현해 온 수준 높은 메타포로서의 수묵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할 시대정신과 미감으로 재조명하고 수묵화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이에 '수묵정신 특별전'과 연계한 강연과 작가와의 대화도 미술관 세

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철량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김호석 한국회화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 강연 후에는 오강식 작가의 차와 서예를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강연은 정근식 교수의 '비판정신과 수묵현실화의 세계:이응노, 장우석, 김호석론'과 김호석 작가의 '한국의 수묵정신'에 관한 주제 발표 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이철량을 중심

으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도립미술관 상설전시실에서 오강식 작가의 우리 전통차 시음과 서예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또한 상설전시실에서는 전시연계체험 '다향목향'이 진행 중이다. 수묵 이미지의 영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람객이 직접 수묵화를 체험하고 차를 음미하면서 명상과 치유, 사색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미술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도민들이 모두 참여 대상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www.j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